

골프황제 우즈냐, 영원한 2인자 미켈슨이나 | 24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릭 골프클럽서 ‘세기의 대결’

우즈-미켈슨 100억짜리 단판승부…1번홀부터 2억원 내기



필드 위의 두 거장이 세기의 대결을 펼친다. 20년 넘게 숙명의 라이벌로 통했던 타이거 우즈(왼쪽)와 필 미켈슨은 24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릭 골프클럽에서 상금 100억원을 놓고 단판승부를 벌인다. AP뉴시스

황제 우즈, 미켈슨에 2인자 꼬리표
20년 세월동안 라이벌로 ‘오르막’
우즈의 부활로 ‘세기의 대결’ 성사

미켈슨 “패배의 기억 돌려주겠다”
우즈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2005년 4월 1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오거스타네셔널 골프클럽.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마스터스에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모두의 시선을 끈 장면은 서로 으르렁거렸던 두 거장의 왕관 교체식. 영광의 얼굴과 비련의 주인공은 단 두 명.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3·미국)와 ‘영원한 2인자’ 필 미켈슨(48·미국)이었다.

당시 서른 살 나이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우즈는 연장 점전 끝에 통산 4번째 마스터스 정상을 밟았다. 그런데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우즈의 우승 세리머니가 아니었다. 관례상 전년도 우승자가 그해 챔피언에게 마스터스의 상징과도 같은 그린재킷을 입혀줬는데, 골프 황제에게 그린재킷을 건넨 이가 다름 아닌 우즈의 평생 라이벌 미켈슨이었던 것이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숙적, 동지, 맞수로 지냈던 우즈와 미켈슨이 전 세계 골프팬들 앞에서 ‘세기의 대결’을 펼친다. 둘은 24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릭 골프클럽에서 ‘캐피털 원스 더 매치: 타이거 vs 필’이라는 이름으로 18개홀 단판 승부를 벌인다. 승자가 독식하는 상금만 무려 900만달러(약 100억원). 성적은 물론 품성, 스타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각을 세웠던 우즈와 미켈슨의 빅뱅이 마침내 다가왔다.

●숙적

둘의 라이벌 구도는 우즈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한 1996년부터 형성됐다. 4년 앞서 입성한 ‘백인’ 미켈슨이 훗날 찬란한 외모와 호쾌한 실력을 앞세워 스타로 발돋움하던 찰나, ‘흑인’ 우즈가 천재성을 내세워 필드를 점령하면서 둘의 살얼음판 승부가

타이거 우즈 vs 필 미켈슨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1975년 12월 30일	생년월일	1970년 6월 16일
185cm·84kg	신장·체중	192cm·90kg
스탠포드대(중퇴)	출신교	애리조나주립대
1996년	PGA 투어 데뷔	1992년
80승	PGA 투어 통산우승	43승
1억1550만4853달러	PGA 투어 통산상금	8825만4084달러
13위	세계랭킹	27위

※세계랭킹은 22일 현재

시작됐다.

실력만큼은 최고를 자부한 ‘오른손잡이’ 우즈와 ‘왼손잡이’ 미켈슨은 서로 우호적일 수가 없었다. 특히 두 세기를 걸쳐 황제로 군림한 우즈의 위용은 적대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폭제와도 같았다. 미켈슨이 영원한 2인자라는 답답지 않은 수식어를 얻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들의 라이벌 판도를 잘 드러낸 때는 2004~2006년 마스터스였다. 미켈슨이 2004년 명인열전을 제패했는데 이듬해 우즈가 왕좌를 빼앗으면서 미켈슨은 우즈에게 그린재킷을 넘겨줘야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어느 한쪽의 편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2006년 미켈슨이 마스터스 정상에 다시 오르면서 우즈는 1년 만에 미켈슨의 굴욕을 재현하게 됐다.

이 같은 둘의 불편한 관계는 십수 년 넘게 계속됐다. 2004년 라이더컵(미국과 유럽연합팀의 골프대항전)에서 같은 조로 출전했다가 2전 전패를 당한 뒤로는 함께 라운드조차 하지 않았다.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동지

그러나 ‘싸우면서 정 든다’는 옛말처럼 흐르는 세월 앞에서 영원한 라이벌을 잃는 모양이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둘은 어느 샌가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로 거듭났다. 특히 우즈가 최근 몇 년 새 부상과 스캔들로 신음하면서 둘의 경쟁의식은 측은지심으로 바뀌게 됐다.

우즈와 미켈슨은 올해 4월 마스터스를 앞

두고는 함께 연습 라운딩을 하며 의기를 투합하기도 했다. 십여 년 전 각자의 힘을 내세우기 바빴던 바로 그 마스터스에서였다. 둘의 동반 플레이에 골프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로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고, 동시에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자본주의로 무장한 미국 스포츠계가 이러한 둘의 스토리를 가만둘 리 없었다. 올해 우즈가 부상 타널에서 나와 필드로 복귀하면서 두 거장의 맞대결이 자연스럽게 논의됐고, 8월말 서로간의 협의 끝에 세기의 대결이 성사됐다. 디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주말인 11월 24일이었다.

●맞수

PGA 투어 통산상금 1위와 2위에 올라있는 우즈와 미켈슨의 맞대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골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거장들의 1대1 매치를 레이에 벌써부터 크나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 배팅업체는 승패 예측에 들썩이고 있고, 각국 방송사 역시 이날 단판승부 생중계를 준비 중이다.

자존심 대결 역시 치열하다. 미켈슨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즈는 그간 내 솔한 기록을 깨트린 선수다. 그동안 수없이 패했던 기억을 돌려줄 기회”라고 다짐했고, 우즈는 “9월 라이더컵 이후 휴식을 취하다가 최근 다시 훈련을 재개했다. 예전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고 응수했다.

우즈와 미켈슨 그리고 둘의 캐디들은 필드 위에서 마이크를 착용하기로 했다. 걸리지 않는 진솔한 대화는 시청자들의 또 다른 구미를 당길 요소다. 여기에 둘은 1번 홀 버디를 놓고 20만달러(약 2억원) 내기를 하기로 했다. 서로의 승부욕을 일깨워줄 자극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선 경기 도중 즉흥적인 내기가 성사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100억원의 상금 그리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가 걸린 승부. 과연 세기의 대결에서 웃을 주인공은 누가 될까.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야구

포수 구하는 다저스, 클리블랜드 원투펀치도 눈독

美매체 “여러건 트레이드 논의 중”
선발 클루버·카라스코·포수 곱스
다저스에게도 매력적인 영입 카드
클리블랜드에 필요한 외야수 많아

‘선발투수 왕국’ LA 다저스의 스토브리그 행보가 심상치 않다. 포수 보강이 시급한 마당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원투펀치까지 노린다.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성사된다면 다저스발 제2, 제3의 트레이드도 잇따를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매체 디 어슬레틱의 켄 로젠탈 기자는 22일(한국시간) “다저스와 클리블랜드가 여러 건의 트레이드를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저스는 클리블랜드 선발투수들과 포수 안 곱스를 좋아하고, 클리블랜드는 외야수를 필요로 한다”며 “다저스는 작 피터슨, 야시엘 푸이그, 알렉스 버두고 등의 외야수들과 포수 유망주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애미 말린스 포수 JT 리얼무토도 다저스의 영입희망 리스트에 있다고 소개했다.

클리블랜드가 다저스에 제시할 수 있는 선발투수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클리블랜드는 이달 초 일찌감치 에이스 코리 클루버와 카를로스 카라스코까지도 매물



코리 클루버

카를로스 카라스코

안 곱스

로 내놓을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클루버는 2014년과 2017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거머쥔 현역 최고의 우완투수들 중 한 명이다. 카라스코 역시 지난해 18승(6패), 올해 17승(10패)을 거둔 에이스급 투수다. 유포아웃을 포기하고 잔류를 택한 클레이튼 커쇼, 1년 1790만 달러(약 202억원)의 퀄리파잉 오퍼(QO)를 수용한 류현진까지 이미 선발진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다저스가 새롭게 선발투수 확보를 추진하는 만큼 향후 다채로운 트레이드 카드가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주전포수였던 야스마니 그란달이 QO를 거부하고 프리에이전트(FA) 시장으로 나감에 따라 다저스의 스토브리그 최우선과제는 안방 보강이다. 로젠탈 기자의 분석대로 클리블랜드와의 협상을 통해 곱스를 데려오는

것도 현실적이다. 곱스는 2019시즌 후 100만 달러의 바이아웃(결별 시 지급하는 돈)을 포함해 2020년 연봉 900만 달러, 2021년 연봉 1100만 달러 등 향후 3년간 비교적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수다. 올 시즌 112경기에서 타율 0.266, 16홈런, 48타점을 올렸다. 따라서 남아도는 외야 자원을 지렛대 삼아 클리블랜드와 얼마든지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를 논의할 수 있다.

곱스를 포함한 클루버는 카라스코든 수준급 선발 자원까지 거머쥔다면 다저스의 다음 행보는 자연스레 선발진 정비로 옮겨갈 수 있다. 다만 QO를 수용해 적지 않은 몸값을 받게 된 류현진은 트레이드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o2@donga.com

소사 떠나는 LG, 윌슨·켈리로 선발진 재편

윌슨과 총액 17억에 1년 재계약
전날엔 SF 출신 우완 켈리 영입

LG 트윈스가 타일러 윌슨(29)과 1년 더 동행한다. 올해까지 4년간 동고동락한 켈리 소사(33)와는 결별한다.

LG는 22일 윌슨과 옵션 30만 달러를 포함한 총액 150만 달러(약 17억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한 메이저리그 출신 우완 케이지 켈리(29)와 계약한 사실을 알린 데 이어 하루 만에 내년 시즌 팀 마운드를 이끌 외국인투수진 구성을 마쳤다. 그야말로 속전 속결이다. LG는 조만간 외국인타자 영입도 완료할 방침이다.

우완 윌슨은 KBO리그에 데뷔한 올 시즌 26경기에서 9승4패, 평균자책점(ERA) 3.07을 기록했다. 타선 지원이 부족해 두 자릿수 승리에는 실패했지만, 켈리티 스타트(QS·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 공동 2위(20회)에 오른 정도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ERA에선 당당히 2위였다. 후반기 부상으로 주춤했지만, 재계약은 유력해 보였다.

LG가 윌슨&켈리로 외국인투수 원투펀치를 재정비함에 따라 2015시즌부터 LG 소속으로만 4년간 122경기(760이닝)에서 40승

41패1홀드1세이브, ERA 4.17을 올린 소사는 KBO리그와 작별하게 됐다. 타 구단 이적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본인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시즌 미국(마이너리그) 생활을 일찌감치 예고한 상태다. 2012년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선을 보인 뒤 넥센 히어로즈(2014년)도 거친 소사의 7시즌 통산 성적은 194경기(1197이닝)에서 68승60패2홀드1세이브, ERA 4.32다.

윌슨은 구단을 통해 “KBO리그에서 다시 뛸 수 있어 기쁘다. 내년에도 LG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특히 열성적인 우리 LG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재계약 소감을 전했다. 정재우 기자



◀ 윌슨